

# 한국 문고본 출판의 역사적 전개

## 학예사의 '조선문고'가 효시... 70년대 기점으로 점차 하향세

문고본은 저렴한 대신 대량판매가 가능해야 한다는 필요조건을 지닌 책이다. 박리다매의 품종인 문고본에 대해 우리나라에서의 손익분기점은 1만부라든가, 외국에선 최소한 3만부를 찍는다든가 하는 설왕설래가 있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문고본은 그의 황금빛 전성기였던 70년대와 일부 단과문고를 제외하고는 출판사의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였다. 그 출혈을 감당 못한 문고본들이 차례로 절판됐다. 문고본이 출판에 있어서 불경기의 돌파구 역할을 하지 못하고, 거꾸로 적자를 누적시키는 애물단지 노릇을 톡톡히 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고본은 우리 출판의 역사에서 '봉사적인 출판'의 대표 영역으로 여겨져온 덕분에 명맥을 유지했다.

독서문화진작과 문고본출판, 그것의 선후는 닭-달걀 논쟁처럼 서로의 꼬리를 물면서 순환한다. 한쪽이 잘 되면 나머지쪽도 덩달아 잘 된다는 논법이다. 대개의 논자들은 우리 문고본의 기획력 부재를 탓한다. 제작과 유통진과정에 걸쳐 문고본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곤 한다. 독서문화의 미소함을 아울러 지적하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소수이다. 한 출판평론가는 "문고본이란 독자층이 고급스런 수준을 가지고 있을 때, 이를 향해 제작되는 책의 형태"라고 말한 바 있다. 그같은 의견은 소비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군림'하는 것이어서 출판관계자들은 차라리 통쾌한 느낌을 갖게 된다고 말한다.

### '봉사적 출판'의 대표영역

일반적으로 문고본은 '싸고 작고 휴대가 간편한 책'이라고 정의된다. 출판학자들은 "크기는 소형이고, 제작상으로 경장본이며, 가격면으로 엽기본"이라고 정의한다.

책의 크기에 특히 주목하자면, 우리 문고본의 기원은 신문화 여명기, 옷소매에 넣고 다니는 '수진본'의 시절로까지 소급된다. 그러나 싼값에 더 관심이 많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문고본은 육당 최남선이 간행한 '6전소설'(1913, 신문관)이 그 효시이다. 그들은 각각 1903년 일본의 富山房이 간행한 수진본 '명저문고'와 1911년 '立川文庫', 1914년 일명 '10전문고'라 불린 '아까찌총서'의 한국적 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일제 무단정치시기에 나오기 시작한 6전소설은 돈과 원고와 검열의 어려움이라는 '3년'속에서 생존대책을 세워야 했다. 총독부의 비

문고본은 박리다매의 품종이다.

그러나 70년대를 제외한다면,

출판사의 효자는커녕 애물단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출판의 역사에서

'봉사적인 출판'의 대표영역으로

여겨져온 덕분이었다.

80년대말 들어, 사회의 추세에 걸맞는

일부 전문문고들이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문고본의 小史를 살펴본다.

위에 거슬리지 않는 한국고전들인 '심청전' '홍길동전' '홍부전' '사씨남정기' 등과 '수호지' 등 중국고전을 펴냈다. 사료판에 정가 6전 균일의 이 시리즈는 일종의 다이제스트판이어서 문고본의 자격조건을 완벽하지는 못한 셈이다.

따라서 '최초의 본격적 문고본'의 기점은 학예사에서 '조선문고'를 발간하기 시작한 1939년이다. 제1권 '원본 춘향전'을 시발로 '현대영시선'까지 총20종을 간행하였다.

번역이나 변안소설류가 횡행하는 시기에, 이 '조선문고'는 채만식·유진오·이기영·박태원·안화남 등의 창작단편집과 '조선연극사'(김재철), '중보 조선소설사'(김태준) 등의 저작물을 선보여 대담하고도 의욕적인 기획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한국고전의 경우에는 역주와 해제까지 수록하는 활기찬 모습을 보여준다. 이를테면 '조선민요선'은 임화가 가려뺐고, 이재욱이 해제를 썼다. 책값은 10~15전으로 면수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이 문고에 대해 출판학자 안춘근씨는 '세계 문고본출판 소고'에서 출판의 자유가 없었고, 한글은 물론 우리말조차 없애려던 일제암흑기에 독서의 대중화를 꾀한 "당시로서는 민족운동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1907년 서점으로 개업한 박문서관도 '조선문고'와 같은 해인 1939년 '박문문고'를 펴내기 시작했다. 김소월의 '소월시초'와 김억의 '안서시초' 등의 시집, 김동인·이광수·현진건·이효석의 단편집, 이병기 역주의 '삼국사기' '하멜 표류기' '인현왕후전' 등 18권을 내고 43년 말 '조선문고'와 더불어 출판금지 조치를 당해 발간이 중단되었다. 8·15후에



'러시아 법률철학사'(주유순 역) 등 4종이 속간됐다. 한편 광한서림사의 '현대문고'도 39년 문고본을 출간했으나 5종을 출간하는데 그쳤다.

### 일제시대 문고본출판 "폐기"라 평가돼

일제시대에 나왔던 3종의 '문고'는 시대성격상 일종의 민족계몽운동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외국문고본은 싼값에 많이 팔아 누이 좋고 매부 좋지는 전략에서 태동했지만, 우리의 그것은 훗날 학자들에게 한국출판역사의 "폐기" "획을 긋는 일"로 자리매김될 만큼 운동의 차원이었다.

1945년 9월, 미군정은 일제의 출판법을 폐지하고 곧이어 출판등록제를 실시했다. 1946년 5월 29일 미군정청은 자유방임의 출판정책을 바꾸어, 출판허가제를 실시했다. 해방후의 '문고'는 말그대로 우후죽순 솟아났다. 정음사의 '정음문고', 을유문화사의 '을유문고', 민중서관의 '민중문고', 농농사의 '인민문고', 연학사의 '연구문고', 통문관의 '신문고', 대성출판사의 '대성문고' 등이 그들이었다. 그같은 분위기는 훗날의 연구자들에 의해 "제1기 문고붐"이라 명명됐다.

정음문고는 그의 첫책으로 존 듀이의 「학교와 아동」(1947)을 선보였다. 1949년까지 「열하일기」(김성철 역주, 전5권) 등 40여종을 출간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중단됐다가 74년 판형을 바꾸어 복간했다.

한국의 대표적 문고라 할만한 「을유문고」는 1947년 창립 두 돌을 맞아 기획되었다. "한국학 분야의 충실한 목록"을 자랑하는 「을유문고」는 6·25 이전에는 구미문학과 국내창작물

에 주력하다가 69년 이후 국학과 한국고전분야에 치중하고 있다.

해방공간에 탄생한 이들 문고는 마르크스의 「경제학비판서설」을 비롯해 「중국봉건사회사」(이상 정음문고) 등 '좌익' 서적을 펴내기도 했다. 남한정부 수립 후에도 미군정하의 법령이 그대로 이어져온 관계로 「사회주의사상사」 「러시아사」(이상 을유문고) 등의 책자가 발간되기도 했다. 한편 을유문고 발간사에서는 "다난한 전도가 예상된다"는 구절이 보여 해방공간의 문고본 역시 판매보다는 "계몽"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 문고본의 화려했던 시절 1970년대

그 문고본은 6·25를 맞아 발간이 모두 중지되고 긴 침체기에 들어갔다. 5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다시 문고붐이 있었다. '양문문고'(1959, 양문사), '교양문고'(1958, 신양사), '위성문고'(1959, 법문사), '현대문고'(1956, 여원사) 등이 그때 출간됐다. 이름하여 "제2기 문고붐"이 대두한 것이다. 그 붐은 60년대 초까지 이어져 '박영문고'(1960, 박영사), '사상문고'(1961, 사상계사), '세계명작문고'(1961, 학원장학회), '탐구신서'(1964, 탐구당)를 낳았다. 60년대 초에 생긴 일부 '문고'는 60년대에 문을 닫기도 했다. 60년대식 줄부들이 읽지도 않을 호화양장의 전집물을 서가에 채워넣기 바빴고, 그같은 풍조가 확산돼 문고본 출판사들의 의욕이 꺾인 것이다.

'박영문고'는 당시 보급정가를 "면당 1원 50전"으로 하고, 손익분기점을 4천부로 잡았다. '탐구신서'는 주 독자층을 일반대중보다는

지식인에 맞추었다. 국내의 석학의 최신 저서를 꾸준히 간행, 아직까지도 '지식인의 반례'가 되고 있다.

60년대 초부터 성행한 외판방식의 전집물 출간은 70년대 들어서도 괴력을 유지했다. "문고본은 망한다"는 저주의 주문이 슬슬 돌아다녔다. 많이 망하기도 했다. 똑같은 외국 백과사전류가 일본에서보다 더 많이 더 빠르게 팔리던 시대였다. 그러나 월부금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 독자들의 거부감, 전집판매 영업망 운영이라는 출판사측의 부담감은 '새로운 형태의 단행본' 혹은 '변형된 문고본'에 관심을 쏟게 만들었다. 여러 출판사에서 각기 다른 특징을 내세운 문고본을 출간했다. 이름하여 "제3기 문고본"이다.

'삼성문고'(1971)는 전기물과 고전을 많이 다루었다. '문예문고'(1972)는 외국의 철학·문학물을, '서문문고'(1972)는 미술과 역사 전기물을 주로 기획했다. '삼중당문고'(1975)는 문학·사상·과학 등 제반영역을, '신구문고'(1974)는 해설과 역주를 섬세히 다룬 고전물을, '현대과학신서'(전파과학사, 1973)는 과학기술 분야를 특화시켰다.

그 결과 문고본이 독자들의 손을 땀다. 서점 입구에는 문고본 전용의 철제 회전스탠드가 없없이 빙글빙글 돌았다. 당시 문고본의 정가는 대략 400원선. 30여개사에서 1천여종의 문고본이 출간됐고, 연간 250만부가 팔리는 전성시대를 구가했다. '주머니 속의 고전'이란 속어가 널리 유포됐다.

70년대의 문고본은 80년대 중반까지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 기세는 차츰 꺾이는 추세를 보였다. 「출판연감」 문고본 발행종수 통계에 의하면, 83년 2517종, 84년 2136종, 85년 1470종, 86년 1330종, 87년 1250종, 88년에 이르러 1천 종 미만인 918종, 89년 296종이었다. 90년대 들어서 「출판연감」에는 문고본 통계가 사라졌다.

80년대 들어 침체된 이유로 출판관계자들은 우선 배껴먹기식 해외문학 문고들의 속출로 인해 독자들의 입맛을 돋구지 못했다는 점을 든다. 또 영업전략상 서점의 서가에서 구매자의 눈에 잘 띄게 큰 판형으로 고치고, 시원한 편집을 위해 여백이 많은 본문과 큰 활자를 사용하는 등 내용의 내실을 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무엇보다도 '계몽운동' 차원의 문고본 출간이 점차 시장논리에 편입됐음을 뜻한다. 문고본은 많이 팔리지 못

하면 출판사와 서점 양측으로부터 버림받는 운명인 것이다. 「박영문고」가 근래에 절판을 선언하기도 했다. 종합문고로서 현재까지 신간을 찍어내는 것은 「을유문고」 정도이다.

사양길에 접어든 문고본 시절 속에서 전문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선한 기획의 단과문고들이 명멸하고 있다. 그중 일부는 스테디셀러에 등재되는 등 후기산업사회에서의 문고본의 한 활로를 제시한다.

사회과학의 시대였던 80년대에는 사회과학 전문문고본이 출현했다. 50페이지 내외의 분량에 6백원 혹은 7백원짜리 '열린글 시리즈'(한울), 사계절의 '교양과학문고'와 풀빛출판사의 '풀빛문고'가 84년에 탄생했다. 그해에는 원고지 3백~7백매 분량을 사륙판에 담은 미니포켓판 '현암새책'(현암사), 프랑스 '크세즈문고' 번역판(담구당) 등이 선보이기도 했다.

#### 90년대 들어 전문독자 겨냥 문고본 각광

80년 이후 성공한 기획문고본들은 일종의 '전문문고' 들이다. 문학분야에서는, 고려원의 '소설문고'(1987)와 범우사의 '에세이문고' 등이 그 예이다. 특히 90년에 1백권으로 완간된 '소설문고'는 장편과 단편으로 이원화된 우리 소설계에 중편을 독립적 장르로 정착시킨 공로를 인정받는다.

1989년은 컬러문고 시대의 개막, '보는 책 시대'의 기점이라 할 만하다. 대원사의 '빛깔 있는 책들'과 서문당의 '컬러백과', 그리고 열화당의 '교양한국 문화사', 열화당에서 70년대에 발간을 시작한 '미술문고' 등이 그 주역이었다. 이들은 1만부가 팔려야 손익분기점에 이르는 문고본들이다. 사회의 추세에 발맞추어 문고본 전문화시대의 도래를 알렸다.

또한 몇몇의 대학출판부 문고본은 대학교재 성격을 뛰어넘어 서점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재 20여개 대학출판부에서 문고본을 발간하고 있는데, 그중 이화여대 출판부의 '이화문고', 서울대 출판부의 '대학교양총서' '문학비평총서', 명지대의 '명지문고' 등이 독자들의 호응 속에서 알찬 기획물을 꾸준히 발간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올해 여름, 산악도서 전문출판사인 평화출판사에서 '그린 북스' 시리즈를 출간했다. 가격이 3500원에서 4000원 선이다.

— 김중식 기자



## “성균관 개구리 한술에 뛰어든다!”

자나 깨나 글을 읽는 사람을 밟지 않게 놀리는 말인 '성균관 개구리'

글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글밭을 일구고자 6년 전 한술은 출발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출판인들과 소중한 인생을 책으로 남기고자 하시는 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잘 여문 옥수수처럼 수수하게 빛나는 책의 얼굴 갖 나온 책들을 만족스레 쓰다듬으며 연신 고마움을 전하는 그분들을 배울할 때 우리들의 피로는 파도 같은 희열로 끊어오릅니다.

출판에 관계된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출판전문 제작대행사-「한술」, 우리의 힘은 바로 글을 사랑하는 '성균관 개구리'의 정신에서 나옵니다.



출판전문회사 「한술기획」은 전자조판에서 편집교정, 자비출판, 제작에 이르기까지 출판 전과정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원고은행으로서 출판의 기회를 찾고자 하는 기성·신인작가들의 옥고(玉稿), 출판사를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과 기존 출판사들께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